

李 격노에 몸 낫춘 鄭… “특검 추천 사고, 대통령께 죄송”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

“당내 벌어진 모든 일 책임은 저때문… 인사검증제도 정비”

김성태 前 쌍방울 회장 변호 맡은 전준철 후보 추천 말썽

이성윤 최고위원이 천거… 李대통령, 상당한 불쾌감 표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 사과했다. 또한 인사검증 시스템 정비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특검 추천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또 “이번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례, 관행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원내 지도부에 추천하고 원내 지도부에서 그 사람을 낙점하고 추천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에 빈틈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이상하게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졌던 관행이 지금까지 있었다”며 “앞으로는 특검 또한 철저하게 인사 추천위원회에서 검증하고 올바른 사람인지 토론하고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번과 같은 인사 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전 변호사 추천 문제를 두고 거센 비판이 나왔다.



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안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깊은 자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제 상식과 원칙, 당원으로서의 제 신념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최소한의 상황 인식을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준철 변호사가 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쌍방울 사건에 이를 몰랐던 건 본인의 해명처럼 이미 진행했던 동료 변호사들의 요청이었다”며 “제가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추천한 것은 윤석열·김건희 수사를 할 때 서슬 퍼런 윤석열 총장 하에서도 결코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강직하게 수사했고, 이번 2차 종합특검의 중요성에 비춰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2차 종합특검 추천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시는 이런 기막히고 부끄럽고

이연주 최고위원은 “전준철 변호사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변호인으로 김성태를 위해 대통령을 끌어들여 재판까지 받게 만든 인물”이라며 “그런 그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는 것은 단순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는 뼈아픈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과 대통령에게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행위였으며 제2의 체포 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것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인 듯하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번 인사 논란을

계기로 당의 시스템 전반을 처음부터 다시 재점검해야 한다”며 “당내 민주주의는 종이 위의 문구가 아니라 절차와 점증이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시는 이런 기막히고 부끄럽고

“선거 당시 연속 기자회견 후 판세 변화”

(1면에서 계속) 정상화 추진위는 고발기자회견을 활용한 조직적 선거 개입 정황을 제기했다.

정상화 추진위는 “선거 당시 송치영 후보는 다수 후보 간 경쟁 구도에서 9대 1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선거 기여를 전제로 한 보은성 인사 여부, 그리고 연합회 조직이 특정 인물 중심으로 사유화되고 있는지 여부를 강하게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정상화 추진위는 소상공인 자격 및 회장 피선거권 적합성 문제와 관련해 “송치영 회장은 현재 (주)프로풀 대표이자 이자 신홍상사 대표를 겸직하고 있음에도, 회장 선거 당시 경력 표기에서 (주)프로풀 대표 경력을 누락하고 신홍상사 대표 경력만 기재했다”며 “이는 정관상 요구되는 소상공인 자격 충족 여부, 그리고 선거인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발 및 기자회견과 연계된 형사 사건과 관련해, 송치영 회장 측이 변호사를 대납했다는 당사자의 진술과 확인서가 제출돼 있다”며 “이는 선거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한 인물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으며, 선거 관련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행정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상화 추진위는 선거 개입 주도자에 대한 보은성 인사 및 언론 통제 의혹도 제기했다.

정상화 추진위는 “해당 고발 및 여론 전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A 씨는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으로 근무하며, 송치영 회장을 비호하는 입장에서 언론 대응을 통제·조율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선거 기여를 전제로 한 보은성 인사 여부, 그리고 연합회 조직이 특정 인물 중심으로 사유화되고 있는지 여부를 강하게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정상화 추진위는 소상공인 자격 및 회장 피선거권 적합성 문제와 관련해 “송치영 회장은 현재 (주)프로풀 대표이자 이자 신홍상사 대표를 겸직하고 있음에도, 회장 선거 당시 경력 표기에서 (주)프로풀 대표 경력을 누락하고 신홍상사 대표 경력만 기재했다”며 “이는 정관상 요구되는 소상공인 자격 충족 여부, 그리고 선거인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상화 추진위는 특히 “다수의 정관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연합회 내부 감사 주도로 회장 본인 및 선거 관련 사안을 포함한 자체감사가 진행됐다”며 “이는 당사자가 연루된 사안을 내부 감사만으로 처리하는 것이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상화 추진위는 “해당 고발 및 여론 전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A 씨는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으로 근무하며, 송치영 회장을 비호하는 입장에서 언론 대응을 통제·조율하고 있다는 문제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스카이 만평

김용덕



정하며 SNS를 통해 공개 처형식 비난을 퍼부었고, 그러자 산업부는 대통령의 서슬 퍼런 격노가 떨어진 지 하루 만에 감사 착수를 발표했다”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민주 국가의 모습인가. 아니면 오직 한 사람의 기분에 따라 국가 기구가 움직이는 ‘1인 인자체 체제’의 민낯이냐”며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특정 단체를 향해 ‘민주주의적’ 운운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곧 장 주무 부처가 감사라는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라 할 수 없다”며 “사실상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집단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제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해서 자산 유출이라는 현실과 우리 경제의 위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 우려는 이미 우리 경제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뼈아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부장관이든, 기재부 장관이든, 국세청장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대한상의’를 감사한다. 책임져라” 이런 즈스러운 짓하지 말라”며 “대한민국이 정말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 정말 돈 벌어도 팝 흘려서 일한 돈의 대가가 모멸과 멸시가 아니라 자부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면 나가라고 등 떠밀어도 나가지 않는 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SNS에서 대한상의 보도자료를 비판한 임광현 국세청장에 대해서도 저격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을 겨냥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의의 보도자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이 긁어하신 모양”이라며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펼칠 뛰고 있다. 대한상의에서 즉각 사과했는데도, 장관들 앞세워서 죽일듯이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과거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가짜 뉴스를 퍼 나르고, ‘시드 전자파’, ‘후쿠시

마 오염수’ 등 수많은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본인은 가짜뉴스로 온 나라를 훼들어 놓고, 통계 한 번 잘못 인용한 것이, 그리 격노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겨냥했다. 그는 “심각한 부분은 임광현 국세청장의 행태”라며 “민간 정책 자료가 공식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권력을 동원해서 겁박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에 해당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 보도자료에서 족발된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가진 긴급 현안 점검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 3월 대한상의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을 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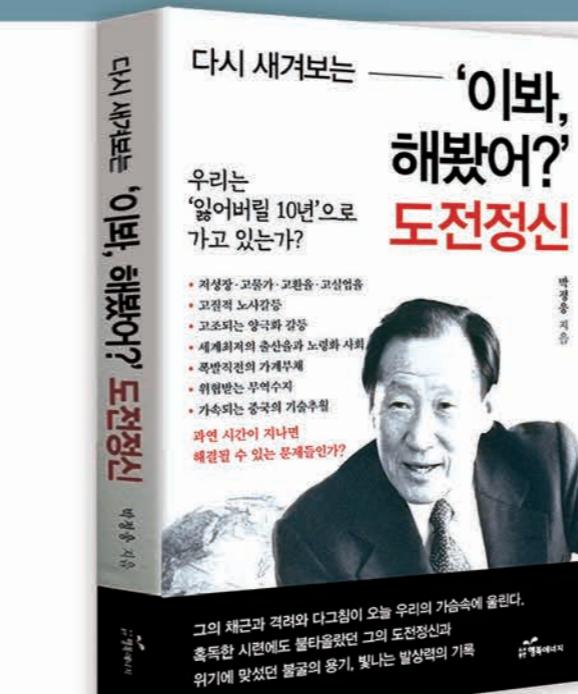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대한상의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다시 새겨보는 —— ‘이봐, 해봤어?’ 도전정신

박정웅 지음 | 348쪽 | 25,000원 | 행복에너지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세계적 격동의 시기, 다시금 되돌아보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위대한 삶의 궤적

중동 건설시장 도전,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조선소 건설 도전, 현대제철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발자취를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뒤따라간다.

단순히 수박 절 할기식으로 그의 위업을 쓰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경련 간부로서 직접 보고 들은 정주영 회장의 생생한 언어와 행동을 통해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 속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한 도전정신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한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혁신과 성장을 가져왔던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 경영학의 태두 피터 드러커조차도 칭찬했다고 알려진 그의 정신이야말로 우리에게 다시금 영감과 용기를 심어 줄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